



중국 전·현직 주석들 나란히 중국의 시진핑(가운데) 국가주석과 장쩌민(오른쪽), 후진타오(왼쪽) 전 국가주석이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 개막식에 참석, 나란히 단상에 앉아 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전 주석은 이날 당대회에 참석함으로써 견제를 과시했다. /연합뉴스

시진핑 체제 2기 신호탄...중국 전대 개막

일주일간 당원 2287명 참가 후계자 지명 여부 관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18일 개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전면적인 사오강(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당 대회 개막 연설에서 “이번 대회의 주제는 초심과 사명을 잊지 말고 중국 특색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깃발 아래 전면적인 사오강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의 출범을 알리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 대회는 오는 24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8944만 7000명의 공산당원 중에서 뽑힌 2287명의 대표들이

인민대회당에 모여 시진핑 2기 체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리 선출된 243명의 주석단이 당대회 기간의 최고 지도부로 42명의 주석단 상무위원회가 회의를 이끌게 된다.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을 비롯한 원로 등 74명도 특별대표로 초청돼 참석해 견제를 과시했다. 이날 시 주석의 뒤를 이어 대회장에 들어선 장 전 주석은 91세의 고령임에도 휠체어 등 도움없이 보좌관의 부축을 받으며 입장한 뒤 시 주석의 왼쪽에 자리를 잡았고 후 전 주석도 건강한 모습이었다. 주석단 상무위원회에는 장쩌민·후진타오 전 주석 외에 리펑(李鵬), 주룽지(朱鎔基), 리우이훙(劉雲鵬), 우방귀(吳邦國), 원자바오(溫家寶), 자정린(賈慶林), 송평(宋平), 리란칭(李嵐清), 쑹정홍(曾慶紅), 우관정(吳官正), 리창춘(李長春), 위간롄(魏乾廉)

허궈강(賀國強) 등 중국 원로 정치인 15명이 포함됐다. 오는 24일까지 대표들은 중앙위원회 및 중앙기율검사위 업무보고와 당장 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게 된다. 당 대회 중반인 21일부터는 차기 중앙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도 병행된다. 중앙위원회는 당대회 결의를 이행하고 당을 이끄는 책임을 지며 대외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는 중추기구로 중앙위원 200여명과 이들의 권력에 대비한 후보 중앙위원을 170여명으로 구성된다. 24일 폐막일에는 당장(黨章·당헌) 개정안의 처리도 이뤄진다. 시 주석의 국정운영 지침인 치국이정(治國理政·국가통치)이 당의 새로운 지도사상으로 편입될지, 당 주석제의 부활을 비롯한 당 권력구조가 개편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대회가 폐막하면 곧바로 그 다음날인

25일 제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가 소집된다. 차기 지도부의 면면도 이 회의에서 확인된다. 25일 정오께 인민대회당 내 기자회견장 연단에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李克強) 총리를 선두로 새 상무위원단이 서열에 따라 입장하는 것으로 재편된 지도부를 확인시킨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새 상무위원을 소개하고 향후 5년간 대내외 정책의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때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유임 여부, 천민일(陳敏爾) 총서기 서기·후춘화(胡春華) 광둥성 서기 두 50대 지도자의 후계자 지명 여부 등이 한꺼번에 확인된다. 시 주석의 권력집중 수위와 장기집권 가능성도 이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연합뉴스

한국인도 예외 없다...중국 테러 경계 강화

중국 공산당의 5년중 최대행사인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18일 개막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북중접경에서도 돌발 사태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해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접경지역 소식통들에 따르면 압록강변의 라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선 도심에 공안이 대거 배치돼 무장상태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해관(세관)·열차역·버스터미널 등에 대한 검문·검색이 엄격하다. 이날 오전 10시 단둥을 출발해 북한 평양으로 향하는 국제열차에 탄 북한 국적자들에게 대해서도 평소보다 검색 강도가 높아졌고 신의주에서 건너온 무역차량들에 대해서도 통관절차가 철저히 진행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접경지역 당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포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테러발생에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식통은 “단둥 열차역에서 탑승객 소지품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와 함께 의심 가는 짐을 개봉해 일일이 확인하는 모습이 계속 눈에 띈다”며 “압록강변 공원에 장갑차가 비상 대기하고 무장경찰의 순찰 횡수도 늘었다”고 전했다. 라오닝성 행정소재지인 선양(瀋陽)시 공안국 간부들은 돌발사태에 대비한 상부 지시로 이미 이달 초부터 장거리 외출이 금지됐고 야간시간·주말 언제든지 근무자로 출동하도록 태세를 갖췄다. 단둥시 공안국은 만약의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부 한국인을 비롯해 테러 대상자가 될 소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당분간 단둥을 떠나 있으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공 돌려 공 세우려는 김정은

김정은(사진)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최근 북한의 모든 아동 학생들에게 축구공을 1개씩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배정에 체육과 국위선양을 연결지어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전역에 플라스틱제트장, 승마장, 스키장 등을 건설하고 있으며, 2012년 11월에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창설해 체육 교육 행정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 축구는 2016년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에 출전하는 등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5월 평양국제 축구학교를 개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의무교육제도는 유치원 1년·초등학교 5년·초급중학교 3년·고급중학교 3년의 12년제로, 김 위원장의 지시가 이행되면 100만개의 축구공이 필요하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김정은 위원장의 축구공 지급 지시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아사히는 한국의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의 말을 빌려 북한이 축구 유니폼을 만들 수 있지만 특수 기술이 필요한 축구공과 축구화는 제조할 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호주 정부의 경우 다음달 자국에서 열리는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챔피언십 예선전과 관련해 북한팀에 비자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미 국무부 “북핵 외교적 해결 포기 않겠다”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어떠한 종류의 대화에도 관심이나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대화는 분명 우리의 선호이고, 외교는 우리가 선호하는 접근 방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물론 국가안보팀의 많은 인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어트 대변인은 유럽연합(EU)의 독자 대북 제재안 발표, 이탈리아의 북한 일 시합 중단(대화를 위한) 대단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이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재

확인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3일 6차 핵 실험을 했으나, 같은 달 15일 이후 이날까지 33일째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 노어트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그것(핵·미사일 시험 중단)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지만, 아직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적 해법 실패 시 군사적 옵션 사용 여부를 묻는 기자에게 “우리는 항상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지만, 국무부 청사 내 이 방, 이곳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외교이며,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유럽연합(EU)의 독자 대북 제재안 발표, 이탈리아의 북한 일 시합 중단(대화를 위한) 대단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 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이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재

전쟁 가능성 성큼...日 총선 여권 압승 전망

오는 22일 투개표가 실시되는 일본 총선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야권의 적전 입어당인 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총의석 46석 가운데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교도통신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민·공명당이 개헌 단독 발의선인 310석 안팎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세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전날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도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으며 마이니치신문도 지난 16일 유사한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도쿄신문 분석에선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희망의 당과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가

이끄는 입헌민주당은 각각 40대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권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정당은 제1야당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문 분석에선 희망의 당이 47석, 입헌민주당이 46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쿄신문이 도쿄도(東京都)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고이케 지사가 국정 정당 대표를 맡은 것에 대해 61.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선거에서 여권의 압승이 예상되는 것은 다수 선거구에서 야당이 경합하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유권자의 표 또한 분산되기 때문으로 도쿄신문은 분석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전국 289개의 소선거구 가운데 80%에 달하는 226개 선거구에서 야당 측이 분열해 여당에 도전장을 내민 형국이 됐다고 전했다. 이들 선거구에선 여당 후보는 1명이지만 무소속 후보와 야당 계열 후보는 2명 이상 복수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호주 초·중생 마약 거래 적발 ‘발각’

호주에서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마약을 거래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호주 사회에 경각음을 울리고 있다. 18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멜버른 리치먼드의 ‘멜버른 걸스 칼리지’에 재학중인 중학교 1학년 학생 2명이 지난주 학교 운동장에서 대마초를 거래하다 교사에 적발됐다. 이 학교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두 1400명 이상이 등록하고 있는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로, 이번 사건은 호주 사회를 놀라게 했다. 학교 측은 마약에 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번 일은 일회성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학생들을 정확히 교육하는 데는 학교가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례는 학교 내 마약과 관련해 적발된 10여 건 중 하나이며, 이번의 중학생이 가장 어린 것은 아니라고 체널7 방송이 전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십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330㎡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5백만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제주도 강정마을 (펜션, 타운하우스부지) 바다 한라산 조망권최상 대지 15,716㎡ 매매가 평당220만원(교한, 조정가)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동구 지산유원지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대지 3,041㎡ 매매가 평당70만원(조정가)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대지 7,226㎡ 매매가 평당50만원(조정가)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